

상징어 어근으로 형성된 한국어 성격 형용사 연구*

김 홍 범 · 권 경 일
(한남대학교) (경희대학교)

1. 서론

한국어 어휘의 다양성과 풍부함을 잘 반영하고 있는 어휘 범주 중의 하나가 상징어이다. 상징어를 어근으로 하여 파생된 형용사들은 일반 형용사에 비해서 섬세하고 미묘한 말맛을 나타내 주게 된다. 이 글에서는 상징어에서 파생된 형용사 중에서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는 형용사를 대상으로 하여 구조적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한국어 형용사의 낱말맛을 구축하는 데에 일조하고자 한다.

이 글에서 다른 자료의 추출 과정을 간략히 개괄하면 다음과 같다.

- (1) 먼저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뜻풀이가 ‘-하는 소리’ ‘-하는 모양’ ‘-하는 느낌’ ‘-하는 태도’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 표제어 6153개를 추출하였다.¹⁾

* 이 논문은 2010학년도 한남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1) 이 글에서는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을 검토의 대상으로 삼았다. 인용된 표제어와 예문은 표준국어대사전에 수록된 내용이며, 본문에서 ‘국어사전’이라 함은 ‘표준국어대사전’을 지칭한다. 표준국어대사전에 수록된 상징어 표제어의 수는 6153개인 데, 이 중에서 소리 상징어 1283 개, 모양 상징어 3847 개, 소리 또는 모양 상징어

- (2) 추출한 상징어의 의미항목이 일반적인 상징어의 기능만을 갖는 것과 ‘성격’을 나타내는 형용사로 의미 확대된 것을 함께 가지는 것 그리고 상징어의 기능을 가지지 않고 성격을 나타내는 형용사로만 쓰이는 것으로 분류하였다. 성격을 나타내는 형용사들은 일반적인 상징어의 기능에서 벗어났다고 해석된다.
- (3) 상징어의 일반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상징어를 어근으로 하여 파생어를 형성한 형용사들의 자모음 바꾸기 형태 변화를 관찰하였다.

상징어 어근으로 형성된 한국어 성격 형용사들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먼저 국어의 파생형용사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자. 김정남(2005)에서는 형용사 파생 접미사를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이에 결합하는 ‘선접어기’도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형용사 파생 접미사들의 계열

- 가. 제 1 계열: -하다
- 나. 제 2 계열: -스럽다, -롭다, -답다.
- 다. 제 3 계열: -겁/갑/접/업/압/엽다, -비/브다
- 라. 제 4 계열: -되다, -지다, -나다, -차다

-하다 선접 어기의 유형

- 가. +고유 +자립
- 나. +고유 -자립
- 다. -고유 +자립
- 라. -고유 -자립

이 글에서 대상으로 삼은 ‘성격’을 나타내는 형용사들은 위의 제 1계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상징어의 어근에 주로 ‘-하다’가 결합한 것들이며, 모두 고유어이고 대부분 자립성이 있다는 점이 이들의 형태론적 특징이다.

2. 상징어의 중심 의미를 유지하는 경우

상징어의 중심 의미를 유지하는 경우 중에는 국어사전에서 표제어의 의미 항목 중에 ‘성격’을 나타내는 항목이 있고, 그 뜻풀이 중에 ‘성질, 성미’ 등의 단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와 표제어의 의미 항목 중에 ‘성격’을 나타내는 항목이 없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후자의 경우 ‘성격’을 나타낸다고 볼 수도 있으나, 뜻풀이 기술의 일관성 면에서 보면 ‘성질, 성미’ 등의 단어가 명시되어 있지 않는 문제가 발견된다.

2.1 ‘성격’의 의미 항목이 있는 경우

‘성격’의 의미 항목이 있는 경우는 자모음 바꾸기의 형태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경우와 자모음 바꾸기의 형태가 고정된 경우로 나뉜다.

2.1.1 자모음 바꾸기 형태가 다양한 경우

아래 예문 (1)~(4)ㄱ은 ‘가슬가슬하다, 거슬거슬하다, 까슬까슬하다, 꺼슬꺼슬하다’가 ‘살결이나 물건의 거죽이 매끄럽지 않고 가칠하거나 뽀뽀하다’의 의미로 쓰이면서 각각 어감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들이다. 이러한 경우에 상징어의 전형적인 용법으로 해당 상징어의 기본적 의미를 드러낸 것이다. 반면에 예문 (1)~(4)ㄴ은 ‘가슬가슬하다, 거슬거슬하다, 까슬까슬하다, 꺼슬꺼슬하다’가 기본적 의미에서 전의되어 ‘성격’을 나타내는 의미로 쓰인 경우이다. 이러한 형용사들은 모두 국어사전에서 표제어로 등재되어 있으나 자모음 바꾸기에 의하여 나타나는 형태 모두가 성격을 나타내는지는 쉽게 판단하기 어렵다. 이 경우에 필자의 언어 직관으로는 자모음 바꾸기의 일부만이 기본적 의미에서 전의되어 성격을 나타내는 형용사로 파생되었다고 여겨진다. ‘성격’을 나타내는 형용사인 ‘까슬까슬하다’는 ‘(성격이) 거칠다’나 ‘(성격이) 까다롭다’보다 더 구체적이며 용법이 제한적이다. 즉 ‘거칠다’나 ‘까다롭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서 더욱 섬세하고 미묘한 말맛의 차이를 살려 쓸 수 있다. 이러한 형용사의 생성은 한국어의 표현을 더욱 풍부하게 한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한국어에서 ‘-하다’의 결합으로 형용사를 만드는 어근의 대부분이 한자어인 데 비해서, 이 글에서 다루는 자료들은 고유어 형용사라는 점이 특징인데, 이러한 조어의 방식은 한국어의 고유어 어휘의 조어력을 증대시키는 데도 기여하고 있다.

까슬까슬-하다

- (1) ㄱ. 겨울이 되니 손등이 까슬까슬하다./밤이슬에 젖은 옷도 어느새 말라 까슬까슬하다.
 - ㄴ. 최 선생 성격이 까슬까슬해서, 대하기가 쉽지 않다.
- (2) ㄱ. 오늘따라 세수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여 얼굴이 거슬거슬하다.
 - ㄴ. 그 사람은 거슬거슬한 성격 때문에 곧잘 오해를 받는다.
- (3) ㄱ.턱에 수염이 까슬까슬하게 돋다.
 - ㄴ. 까슬까슬한 성격/까슬까슬하게 대하다.
- (4) ㄱ. 서보 영감의 꺼슬꺼슬한 턱수염이 살살 이마개를 간지럼 먹일 정도로...
 - ㄴ. 꺼슬꺼슬한 성격/꺼슬꺼슬하게 대하다.

아래 예문 (5)~(8) ㄱ은 ‘반질반질하다, 번질번질하다, 뻘질뻘질하다, 뻘질뻘질하다’가 ‘거죽이 윤기가 흐르고 매우 매끄럽다’의 공통된 의미로 쓰이고 있지만, 크고 작은 어감과 세고 여린 어감의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이러한 자모음 바꾸기에 의해 어감의 차이를 보이는 방식은 상징어의 일반적인 특성이다. 그러나 상징어가 기본 의미에서 의미가 전의되어 다의어를 형성할 때에는 자모음 바꾸기 형태가 제한된다. 예를 들어 (토끼가) ‘깡충 뛰다’는 ‘경충 뛰다’의 형태로도 쓰이지만, (물가가) ‘상승하다’의 의미로 쓰일 때는 (‘물가가) 깡충 뛰다’의 형태로는 쓰이지 않고 ‘경충 뛰다’의 형태로만 나타난다. 이와 같은 자모음 바꾸기의 제약성을 고려한다면, 위의 (6)ㄴ, (8)ㄴ의 ‘번질번질하다’와 ‘뻘질뻘질하다’ 형태가 실제로 쓰이는 것인가에 대한 신중한 관찰이 필요하다. ‘뻘질뻘질하다’가 ‘뻘뻘스럽다’와 ‘유들유들하다’와 의미와 용법에서 차이가 있듯이, 문화적인 요소를 반영하고 있는 관용구도 그 의미와

용법에서 일반적인 형용사와 차이를 나타낸다. ‘얼굴이 두껍다’나 ‘얼굴에 첩판을 깔다’는 상징어를 어근으로 하여 형성된 형용사와 유사한데 그것이 쓰이는 맥락이 일반 형용사보다 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 글에서 다루는 성격을 나타내는 형용사들은 모두 상징어를 어근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어의 특수성을 두드러지게 보여주는 것들이다.

▶▶▶▶▶(하디)

- (5) ㄱ. 머리가 **반질반질하다**/책상이 손때가 묻어 윤이 **반질반질하게** 난다./머리가 기름으로 **반질반질하다**.
 ㄴ. 이런 영입에 닮여 났어도, **반질반질하거나** 때가 쪼르르 흐르는 그런 위인이 아니기 때문에, 옥주는 인간적으로도 좋아한다.
- (6) ㄱ. 모두들 얼굴에 개기름이 **번질번질하고** 눈곱 낀 눈이 별절게 충혈이 되었습니다
 ㄴ. 여러번 싫은 소리를 했지만, 동생은 **번질번질하게** 들은 척도 안 했다.
- (7) ㄱ. **뽕질뽕질한** 빙판/수염을 깎아서 턱이 **뽕질뽕질하다**.
 ㄴ. 그는 잘생겼지만 조금도 **뽕질뽕질하지** 않고 소탈했다./그는 **뽕질뽕질해서** 남의 굶은일 에는 나서 본 적이 없다.
- (8) ㄱ. 마룻바닥이 **뽕질뽕질하다**.
 ㄴ. 동생은 성격이 **뽕질뽕질해서** 어디를 가나 기죽지 않는다.

아래 제시한 ‘노글노글/누글누글하다’, ‘노긱노긱/누긱누긱하다’, ‘눅진눅진/눅진눅진하다’의 성격을 나타내는 형용사는 모두 ‘부드럽다’는 공통된 의미를 가지지만, ‘정도성’에서 차이를 보인다. 국어사전의 뜻풀이를 비교해 보아도 이를 변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누글누글하다’보다 ‘누긱누긱하다’가 더 부드럽다는 점이 서로 다른 점으로 기술되어 있고, ‘눅진눅진하다’는 [+끈기]라는 의미 속성이 있다는 점에서 변별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중심 의미를 살펴 보면 각각의 의미 차이가 드러나지만, 순환적 정의에 가까운 뜻풀이를

2) ‘뽕질뽕질하다’는 형용사 파생뿐만 아니라 동사로도 쓰인다. 여기서는 형용사의 용법만을 보인다.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사한 의미 범주의 상징어들을 모아서 그 의미와 용법을 변별하는 ‘의미 분류 사전’이 필요하다. 앞으로 상징어 낱말망이 구축되어야 제대로 된 의미 분류의 틀이 제시될 수 있으며, 유사한 의미의 상징어들을 변별하는 데에도 객관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³⁾

노글노글-하다

- 「1」 좀 무르고 보드랍다.
- 「2」 성질이나 태도가 좀 무르고 보드랍다.

누글누글-하다

- 「1」 꽤 무르고 부드럽다.
- 「2」 성질이나 태도가 꽤 무르고 부드럽다.

노긱노긱-하다

- 「1」 여럿이 다 또는 매우 메마르지 않고 녹녹하다.
- 「2」 성질이나 태도가 여럿이 다 또는 매우 보드랍고 순하다.

누긱누긱-하다

- 「1」 여럿이 다 또는 매우 메마르지 않고 녹녹하다.
- 「2」 성질이나 태도가 여럿이 다 또는 매우 부드럽고 순하다.

녹진녹진-하다

- 「1」 물기가 약간 있어 녹녹하면서 끈끈하다.
- 「2」 성질이 보드라우면서 끈기가 있다.

녹진녹진-하다

- 「1」 물기가 있어 매우 녹녹하면서 끈끈하다.

3) 김홍범(2009)에서는 사전 표제어의 일관된 뜻풀이 기술을 위하여 상징어의 의미기술 모형을 제시하고, 사전의 뜻풀이를 의미 구성 요소별로 해체하여 상징어의 뜻풀이를 분석적으로 기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2」 성질이 부드러우면서도 끈기가 있다.

아래 예에서 ‘간작간작하다’와 ‘끈적끈적하다’를 ‘간간하다’와 ‘끈끈하다’로 뜻풀이한 것은 ‘등실등실’을 ‘등등’으로 뜻풀이한 것과 같이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이다. ‘덜컹덜컹’을 ‘덜덜’로 ‘살금살금’을 ‘살살’로 뜻풀이하는 것은 두 단어의 다른 점을 명확히 한 후에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꼬장꼬장하다’와 말맛을 달리하는 형용사로 ‘꾸정꾸정하다’를 표제어로 등재하고 있는데, 글쓴이의 언어직관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상징어의 자모음 바꾸기는 단순한 대응관계가 아니라 빈칸이 존재하는 양상을 띠고 있기 때문에 단선적인 표제어 설정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

간작간작-하다

「1」 자꾸 착착 달라붙을 만큼 간간하다.

「2」 자꾸 검질기게 굴 만큼 성질이 간간하다.

「비」[I]간작거러다.

끈적끈적-하다

「1」 자꾸 척척 들러붙을 만큼 끈끈하다.

「2」 자꾸 검질기게 굴 만큼 성질이 끈끈하다.

꼬장꼬장-하다

「1」 가늘고 긴 물건이 굵지 아니하고 쪽 곧다.

「2」 늙은이의 허리가 굵지 아니하고 꼳꼳하며 건장하다.

「3」 성미가 곧고 결백하여 남의 말을 좀처럼 듣지 않는 경향이 있다.

꾸정꾸정-하다

「1」 가늘고 긴 물건이 굵지 아니하고 쪽 곧다.

「2」 늙은이의 허리가 굵지 아니하고 꼳꼳하며 건장하다.

「3」 성미가 곧고 결백하여 남의 말을 좀처럼 듣지 않는 경향이 있다.

「4」 걸모습 따위가 불품이 없거나 더럽다.

위에서 검토한 내용을 표로 보이면 다음 <표1>과 같다

[표1] 상징어 어근의 자모음 바꾸기 형태

상징어어근	기본의미 유지		기본의미 벗어남(성질)		
	모음바꾸기	자음바꾸기	모음바꾸기	자음바꾸기	
가슬가슬	양성	가슬가슬하다	까슬까슬하다	가슬가슬하다	까슬까슬하다
	음성	거슬거슬하다	꺼슬꺼슬하다	거슬거슬하다	꺼슬꺼슬하다
반질반질 ⁴⁾	양성	반질반질하다	뽕질뽕질하다	반질반질하다	뽕질뽕질하다
	음성	번질번질하다	뽕질뽕질하다	번질번질하다	뽕질뽕질하다
노글노글	양성	노글노글하다	.	노글노글하다	.
	음성	누글누글하다	.	누글누글하다	.
노긱노긱	양성	노긱노긱하다	.	노긱노긱하다	.
	음성	누긱누긱하다	.	누긱누긱하다	.
녹진녹진	양성	녹진녹진하다	.	녹진녹진하다	.
	음성	눅진눅진하다	.	눅진눅진하다	.
간작간작	양성	간작간작하다	.	간작간작하다	.
	음성	끈적끈적하다	.	끈적끈적하다	.
꼬장꼬장	양성	꼬장꼬장하다	.	꼬장꼬장하다	.
	음성	꾸정꾸정하다	.	꾸정꾸정하다	.

2.1.2 자모음 바꾸기 형태가 고정되는 경우

앞에서 살펴 본 예는 자모음 바꾸기의 형태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경우이며, 다음은 자모음 바꾸기의 형태가 고정되는 경우를 살펴보기로 한다.

아래 예문 (9) ~ (13) ㄱ은 상징어가 중심의미로 쓰인 경우이고 (9) ~ (13) ㄴ은 성격을 나타내는 형용사로 쓰인 경우이다. ‘쌀쌀하다, 하리타분하다, 우락부락하다, 둥글둥글하다, 덜렁덜렁하다’는 상징어의 중심의미에서 의미가

4) 접미사 ‘-하다’ 뿐만 아니라 ‘-거리다’, ‘-대다’ 가 결합한 파생어 형성도 가능하다. 여기서는 ‘성격’을 나타내는 형용사를 논의의 대상으로 삼았으므로 ‘-하다’ 파생형만 제시한다.

확대된 것들인데 중심 의미는 자모음 바꾸기의 다양한 형태가 존재하지만 이들 주변 의미의 형용사들은 형태 변화가 제한적이다. 예문 (9)ㄱ의 ‘둥글둥글하다’가 ‘둥글둥글/똥글똥글/똥글똥글하다’로 교체될 수 있고 예문 (10)ㄱ의 ‘덜렁덜렁하다’가 ‘달랑달랑/딸랑딸랑/떨렁떨렁하다’로 교체될 수 있는데 비하여 예문 (9)ㄴ의 ‘둥글둥글하다’는 ‘둥글둥글하다’로는 교체될 수 없으며 예문 (10)ㄴ의 ‘덜렁덜렁하다’도 ‘달랑달랑하다’로 교체될 수 없다. 이와 같이 자모음 바꾸기의 차이를 강하게 보이는 특징은 이 들을 다의어로 처리하기 보다는 동형어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근거가 된다. 예문 (11)ㄱ-(13)ㄱ은 중심 의미로 쓰인 상징어도 다양한 자모음 바꾸기에 제약을 보인다는 점에서 (9)ㄱ-(10)ㄱ과 차이가 있지만, (11)ㄴ-(13)ㄴ도 형태가 고정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9)ㄴ-(10)ㄴ과 마찬가지로 유형에 속한다.

(9) ㄱ. 강바닥은 주먹 크기의 자갈들이 깔려 있었고 자갈들은 대부분 오리알 처럼 **둥글둥글했다**.

ㄴ. 그는 어디서나 잘 어울리는 **둥글둥글한** 성격이다.

(10) ㄱ. 바람이 불 때마다 방문이 **덜렁덜렁한다**.

ㄴ. 형은 치밀한 성격인데 동생은 좀 **덜렁덜렁하지**.

(11) ㄱ. 낮에는 덥지만 아침저녁으로는 **쌀쌀하다**/초겨울 오후의 **쌀쌀한** 날씨인데도 그는 월남 땅 폭염 속을 길을 때처럼 땀을 흘리고 있었다

ㄴ. 그녀가 어찌나 **쌀쌀한지** 말도 못 붙여 보았다./그녀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상냥했지만 유독 그에게만은 **쌀쌀하게** 대했다.

(12) ㄱ. 오늘따라 건너 편 건물이 **하리타분하게** 보인다.

ㄴ. 저 녀석은 결정할 때마다 **하리타분하게** 행동한다.

(13) ㄱ. 키도 크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는 험상궂게 생기거나 **우락부락하게** 생기지도 않았다./잠바 차림의 **우락부락하고** 긴장한 청년 둘이 테이블 앞에 서 있었다.

ㄴ. 늙은 천석이한테 호되게 당했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하긴 자식이 조금 **우락부락하니까**.

2.2 ‘성격’의 의미 항목이 없는 경우

아래 제시한 형용사들은 상징어에서 파생되어 성격을 나타내는 의미로 쓰이는 형용사들이지만, 사전의 뜻풀이 의미항목에는 성격(성질)과 관련된 의미 항목이 없다. ‘나긋나긋하다’의 의미항목을 보면,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매우 상냥하고 부드럽다’로 뜻풀이가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성격을 나타내는 형용사로 기능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의미 정보 제시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앞에서 제시했던 표제어들과 마찬가지로 ‘성질이 어떠한다’의 형식을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 ‘뻑뻑하다’의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로 ‘융통성이 없고 조금 고지식하다’의 의미 항목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성격을 나타내는 형용사의 자격이 있음에도 의미 정보에는 ‘성질(성격)이 어떠한다’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 않다. ‘뻑뻑하다’의 뜻풀이를 ‘뻑뻑하다’와 대응하여 볼 때 ‘서먹서먹하여 대하기 어렵다’는 의미를 덧붙이고 있다. 이 점은 ‘뻑뻑하다’의 용법을 면밀히 관찰한 결과로 평가된다. ‘화끈하다’의 경우 상징어의 기능을 유지한 중심 의미로 쓰일 때는 ‘화끈거리다, 화끈대다’ 등의 파생어를 형성하지만, 성격을 나타낼 때는 ‘화끈하다’의 형태만으로 쓰이어 파생어 형성에 차이를 보인다.

나긋나긋-하다

- 「1」 매우 보드랍고 연하다.
- 「2」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매우 상냥하고 부드럽다.
- 「3」 글이 알기 쉽고 멋있다.

느긋느긋-하다

먹은 것이 내려가지 아니하여 속이 매우 느긋하다.

까칠-하다

아위거나 메말라 살갓이나 털이 윤기가 없고 조금 거칠다. ‘까칠하다 01’보다 센 느낌을 준다.

빽빽하다

- 「1」 물기가 적어서 보드라운 맛이 없다.
- 「2」 국물보다 건더기가 가들막하게 많다.
- 「3」 여유가 없어서 조금 빠듯하다.
- 「4」 융통성이 없고 조금 고지식하다.
- 「5」 꼭 끼거나 맞아서 헐겁지 아니하다.
- 「6」 바둑이나 장기에서, 실수 없이 잘 두기 때문에 결말이 빨리 나지 아니하여 답답하다.

빽빽하다

- [1]-[6]
- [7] 서먹서먹하여 대하기가 어렵다.

회끈하다

- 「1」 몸이나 쇠 따위가 뜨거운 기운을 받아 갑자기 달아오르는 느낌이 있다.
- 「2」 일을 아주 시원스럽게 하는 맛이 있다.

3. 상징어의 기능을 가지지 않는 경우

이 장에서는 한국어 사전에 표제어로 등재되어 있는 상징어 중에서 전형적인 상징어의 기능을 가지지 않고 성격을 나타내는 기능으로만 쓰이는 예를 살펴보고자 한다.

3.1 사전에서 어근만 표시된 경우

아래 제시한 상징어들은 ‘성격’을 나타내는 것들인데 ‘-하다’가 결합된 형용사는 표제어로 등재되어 있지 않는 것들이다. ‘곰상곰상’은 ‘성격’ 관련 의미 항목이 2개로 제시되어 있다는 점에서 의미항목이 하나뿐인 ‘바상바상, 차분차분, 뽀롱뽀롱’과 차이가 있다. 여기에서 제시한 예들에 대한 파생 정보

가 없는 것은 사전 뜻풀이 기술상의 단순한 오류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차분차분’의 경우 ‘차분하다’라는 형용사는 이미 꽤 빈도가 높게 나타나는 형용사에 속하며, 다음에 제시할 목록의 형용사와 특별한 구조상의 차이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곰상곰상

(1) 성질이나 행동이 싹싹하고 부드러운 모양.

여보, 아이들한테 무조건 욕박지르지 말고 좀 **곰상곰상** 대해 주세요.

(2) 성질이나 행동이 잘고 꼼꼼한 모양.

일을 **곰상곰상** 처리하다.

차분차분

성질이나 태도가 부드럽고 조용하며 찬찬한 모양.

그 아이는 **차분차분**해서 뭘 해도 잘 할거야.

뽕뽕뽕뽕

성미가 부드럽지 못하여 남을 대하는 것이 몹시 까다롭고 걸핏하면 툭툭 쏘기를 잘하는 모양.

내 친구는 성미가 **뽕뽕뽕뽕**해서 다른 사람들이 만나기를 꺼려.

바상바상

성질이 좀 가볍고 성급한 모양.

그는 성질이 **바상바상** 말라서 한곳에 오래 붙박혀 있을 사람이 아니었다. <<선대>>

먼저 ‘곰상곰상’을 보면 뜻풀이에 ‘싹싹하다’와 ‘부드럽다’라는 형용사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또 다의어로서 ‘잘다’와 ‘꼼꼼하다’라는 형용사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의미 항목도 있다. 이와 같이 일반적인 형용사들이 갖고 있는 개념적 의미보다 함축적 의미가 더 강조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차분차분’을 보면, ‘부드럽다, 조용하다, 침착하다’의 의미를 포함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상징어의 적절한 쓰임과 그 제약에 대한 정보는

국어사전에서 더 상세히 제공할 필요가 있다.

‘뽕뽕뽕’의 경우도 그 뜻을 보면, 그 쓰임이 일반적인 형용사의 용법보다 매우 제한적이며 구체적이기 때문이다.

3.2. 어근과 ‘어근+하다’가 있는 경우

아래 ‘조근조근/초근초근/추근추근’도 의미 영역이 동일한 범주의 상징어 들이며 이들이 다시 성격을 나타내는 형용사를 파생어로 가진다는 점에서 의미 변별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 그러나 국어사전에서는 ‘초근초근’ ‘추근추근’의 뜻을 동일하게 처리하고 있다. 특히 ‘조근조근’과 ‘추근추근’의 다른 점을 ‘은근하다’와 ‘검질기다’로 본다면 ‘은근하다’와 ‘검질기다’의 차이로 그 해결점을 넘기고 있을 뿐이다. 물론 상징어의 의미 변별은 매우 섬세하고 예민한 부분이지만 이러한 문제점에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서는 문제점의 인식에서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다.

을끈 을끈하다.

성미가 급한 사람이 불쑥 성을 내는 모양.

너처럼 **을끈** 성을 내면 다 좋아하지 않는단다. <<선대>>

을뚝 을뚝하다

성미가 급하여 참지 못하고 성을 내며 말이나 행동을 암상스럽게 불쑥하는 모양.

을뚝 성을 내다.

을뚝을뚝 을뚝을뚝하다

성미가 급하여 참지 못하고 자꾸 성을 내며 말이나 행동을 암상스럽게 불쑥하는 모양.

그녀는 **을뚝을뚝**하게 그를 대한다.

을뚝 을뚝하다

성미가 급하여 참지 못하고 말이나 행동이 우악스러운 모양.

소진은 **울퉁**한 성격 때문에 남들과 잘 사귀지를 못한다.

울퉁울퉁 울퉁울퉁하다

성미가 급하여 참지 못하고 말이나 행동을 잇따라 함부로 우악스럽게 하는 모양.

그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청년들은 **울퉁불퉁**하며 일어섰다.

조곤조곤 조곤조곤하다

성질이나 태도가 조금 은근하고 끈덕진 모양.

조곤조곤 설명하다/ 흐흥! **조곤조곤** 따져 볼 모양인데?

초근초근 초근초근하다

성질이나 태도가 검질기고 끈덕진 모양.

초근초근 줄라 대다.

추근추근 추근추근하다

성질이나 태도가 검질기고 끈덕진 모양.

추근추근 굴다/이 비장은 **추근추근** 논개의 뒤를 따라가면서 지껄인다.

우질부질 우질부질하다

성질이나 행동이 곰살궂지 못하고 좀 똑똑하고 사나운 모양.

이래저래 속이 상해서 초조하고 안타까워하는 모양

우질부질 속만 타다.

씨익씨익 씨익씨익 하다

성질이 굳세고 활발한 모양.

그는 올 때보다도 서슬이 더 퍼레져 가지고는 **씨익씨익** 저수지를 향해 발길을 돌렸다.

위의 ‘울퉁울퉁/울퉁울퉁/울퉁’은 의미적 유연성이 높다. 이들 상징어들의 뜻풀이를 비교해 보면 의미 변별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상징어 뜻풀이의 의미 기술 모형이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뜻풀이가 요구된다. ‘울끈하

다/울퉁하다/울퉁하다'의 뜻풀이를 비교해 보아도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결국 이 경우도 [암상스럽다]와 [우악스럽다]의 의미 변별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 ㄱ. **울퉁울퉁** : [성미가 급함 +] [성을 냄 +]
- ㄴ. **울퉁울퉁** : [성미가 급함 +] [암상스럽다 +]
- ㄷ. **울근** : [성미가 급함 +] [우악스럽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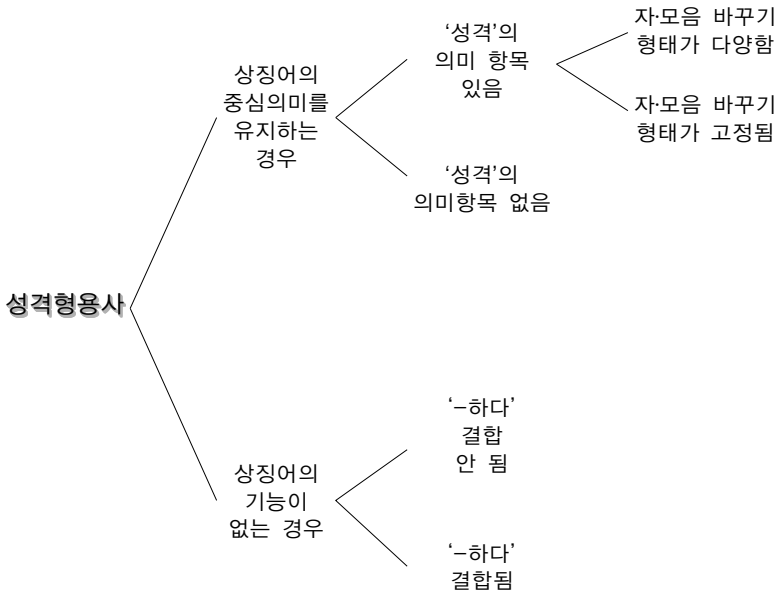
‘강하다, 거칠다, 게으르다, 겸손하다, 경솔하다, 급하다, 날카롭다, 느리다, 단순하다, 독하다, 명랑하다, 모질다, 뻔뻔하다, 섬세하다, 소심하다, 순진하다, 암전하다, 원만하다, 오만하다, 차분하다, 활발하다’ 등의 일반 형용사들이 나타내는 성질이나 태도 등의 표현 효과보다 상징어를 어근으로 형성된 성격 형용사들은 더 섬세하고 다채로운 표현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말 조어력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또한 어근이 모두 고유어로 되어 있다는 점도 우리말 어휘를 더욱 풍부하고 다양하게 한다는 장점을 지닌다.

4. 맺음말

이 글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의문점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기 위해 「표준국어대사전」에 수록된 6000여 개의 상징어를 대상으로 분석 작업을 진행하였다.

- 첫째, 상징어를 어근으로 하여 형성된 성격을 나타내는 형용사들의 구조적 특성은 무엇인가?
- 둘째, 상징어를 어근으로 하여 형성된 성격을 나타내는 형용사와 성격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형용사의 기능상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 셋째, 상징어를 어근으로 하여 성격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향후에도 생겨난다면, 그 형태를 예상할 수 있을까?

첫째의 의문점에 대해서는 다음의 그림으로 해답을 대신하고자 한다.



둘째 의문점은 한국어 형용사의 의미 분류 체계와 한국어 상징어 낱말망의 분류 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비교 분석 작업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즉 상징어의 의미 영역 분류가 선행되어야 형용사의 의미 변별도 명확해질 것이다.

셋째 의문점은 가장 큰 관심사이기도 하지만 선부른 예상보다는 먼저 상징어 중에서 성격을 나타내는 형용사로 파생된 상징어 어근들의 공통점을 파악해야 한다. 또 단일한 의미 항목을 가지고 있는 상징어 중에서 ‘말하는 모양이나 태도’ 등을 나타내는 상징어들을 대상으로 분석하는 작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상징어 중에 ‘말리는 모양’이나 ‘사람의 태도’를 나타내는 상징어들에서 성격 형용사가 많이 파생되어 나오기 때문에 해결점을 찾을 수 있다.

모국어 화자들이 상징어를 어근으로 하는 형용사들을 사용하는데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 것에 비해 외국어로서 한국어 학습자들은 한국어에 대한 언어

직관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고 제약에 대한 정보를 갖지 못하면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높다. 모국어 화자들에게 오류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사전의 뜻풀이에 대한 이해가 충분했다고 보기 보다는 직관적으로 그 용법을 습득하기 때문이라고 추정된다. 따라서 외국인 학습자가 국어사전의 정보를 이해하고 오류를 범하지 않을 정도의 충실한 의미 정보와 제약 정보를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상징어의 의미 영역 분류 사전의 출판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작업을 지속적인 과제로 삼기로 한다.

❖ 참 고 문 헌

- 권경일, 『국어관용구 연구』, 연세대 박사학위 논문. 2004
- _____, 「한국어 감정 표현 관용구의 의미 특성에 대한 연구」, 문법교육11, 2009.
- 김정남, 「국어 형용사의 의미 구조」, 한국어의미학8, 2001
- _____, 『국어 형용사의 연구』, 역락. 2005.
- 김홍범, 「한국어 상징어 사전의 편찬 방안」, 한글239. 1998.
- 김홍범·이영주 「상징어의 의미 영역 분류 연구(1)」, 한말연구 제24호, 2009.
- 남영신, 우리말 분류사전, 한강문화사. 1988.
- 연변언어연구소, 『우리말 의성어 의태어 분류 사전』, 연변인민출판사, 1981.
- 박동근, 현대 국어 흉내말 연구, 건국대 박사학위 논문, 1997.
- 한경진, 한국어 교육을 위한 상징어 분석, 전남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 연세한국어사전, 두산동아, 1998.
- 조선어연구회 편, 『우리말 의성어 의태어 사전』, 조선어 연구회, 1971.

❖ ABSTRACT

A Study on Character Adjectives in Korean
that Have Symbolic Words as Roots

Kim Hong-bum, Kwon Kyung-il

This study aims to observe the features of Korean adjectives composed with symbolic base impling human character. Korean adjectives composed with symbolic base shows more delicate nuances than ordinary adjectives. For observing the feature of them we analyzed the 6000 symbolic words in 'Stanadard Korean Dictionary'. As a result,the symbolic base of adjectives is divided into the one that maintain the basic meaning of symbolic words and the other that do not maintain basic meaning of symbolic words. The base that maintain the basic meaning of symbolic words is divided into the one that has meaning of character and the other that do not has meaning of character. The base that do not maintain the basic meaning of symbolic words is divided into the one that can relate with '-hada' and the other that cannot relates with '-hada'. This study remains the problem in future to examine common points of symbolic base

Key Words

상징어, 형용사, 성격, 낱말망, 사전

symbolic words, Adjectives, character, word-net, dictionary

논문접수일: 2010. 2. 21.

심사완료일: 2010. 4. 10.

게재확정일: 2010. 4. 15.